

7월 2주
비참한 죽음, 죄에 대한 심판

- **본문 말씀:** 열왕기하 9:30~35 (7월 11일 본문)
- **포인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결국 두려운 심판을 행하세요.

≡ 1. 찬양

(경배와 찬양) 보혈을 지나

≡ 2. 기도

하나님, 저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깊이 알아 가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세요.

≡ 3. 말씀

열왕기하 9:30~35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30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31 예후가 문에 들어오
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아 평안하냐 하니 32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33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34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 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35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우리말성경>

30 그 후 예후는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이세벨은 이 말을 듣고 눈에 화장하고 머리를 매만진 뒤 창문으로 내다보
았습니다. 31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자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아, 평안하냐?” 32 그
러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문을 쳐다보고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편이 될 것이냐? 누구냐?” 두세 명의 *내시들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33 예후가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던지라!” 그러자 내시들이 이세벨을 내던졌습니다. 이세벨
의 피가 벽과 말들에 튀었고 예후는 발로 이세벨의 시체를 짓밟았습니다. 34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시며 말했습니
다. “가서 저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물어 주라. 그 여자가 왕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35 사람들이 이세벨을 물어
주려고 나가 찾아 보니 남은 것은 해골과 발과 손바닥뿐이었습니다.

≡ 본문 이해

하나님은 예후를 북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아합의 집안사람을 심판하셨어요. 특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북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퍼뜨린 장본인이예요. 이세벨은 죽음 직전까지도 교만하게 행하며 예후를 무시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이세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아합과 이세벨은 북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를 퍼뜨린 장본인이예요.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나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선고하자, 그제야 아합은 회개했어요. 아합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은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와 그의 집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지만 아내 이세벨과 자녀들은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에 심판을 받게 되어요. 하나님은 예후를 북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아합 가문을 치라고 명하셨어요.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유다 왕 아하시야도 죽였어요. 그런 후에 요람의 어머니이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찾아갔어요.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으로 아합과 결혼할 때 바알 신앙을 들여와 북 이스라엘에 전파했어요. 예후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세벨은 완장을 하고 머리를 치장했어요. 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교만함을 보여 주는 행동이에요. 이세벨은 예후를 과거에 반역을 일으키고 7일 천하를 누린 시므리에 비유하며 조롱했어요(왕상 16:9~10). 하지만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왕상 21:23).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아합의 집안사람이 모두 멸망했어요.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 계속 경고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예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받는 심판은 엄중하고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 4. 나눔

1)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죽음은 어떠했나요?(33, 35절) 그녀는 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왕상 16:31; 18:4; 21:15; 왕하 9:7 참조)

■ 저학년

왕비였던 이세벨은 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힌트 : 7월 11일 말씀씨앗)

■ 유아·유치

왕비였던 이세벨은 왜 죽었나요?(힌트 : 7월 11일 말씀종극)

□ 질문 가이드

이세벨의 죽음을 살펴보는 것은 불편하고 끔찍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세벨이 저지른 죄가 훨씬 더 크며,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그 죄를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세벨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참고해 하나님이 왜 이세벨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세요.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시돈 왕 옛바알의 딸로, 아합과 정략결혼을 했어요(왕상 16:31). 북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조장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왕상 18:4). 아합이 나뭇의 포도원을 빼앗지 못해 전전공공할 때, 나뭇을 죽이도록 계락을 꾸미고 결국 나뭇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었어요(왕상 21:15). 악한 이세벨은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 시신을 개들이 먹을 것이라는 비참한 심판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9:7, 10).

□ 인도자를 위한 해설

하나님은 죄를 경고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악한 이세벨은 끝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결국 예후를 통해 아합 집안과 이세벨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본래 심판하시고 벌주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바라요.

2)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잘못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 저학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무엇인가요?

■ 유아·유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무서운 벌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 보세요.

□ 질문 가이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기 쉬워요. 각자의 삶에 자연스럽게 도 익숙한 죄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길 기도하며 돌아보길 바라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보다 죄짓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히 12:4)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믿음의 현실이예요.

≡ 5. 감사하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리세요.

≡ 6. 기도

하나님, 죄로 인해 심판과 멸망이 예정된 저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심판보다 구원 베풀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